

‘2년 공석’ 켄텍 2대총장 선임 또 무산

이사회 과반 득표자 없어 부결
총장 리더십 부재 장기화
에너지 인재 양성 차질 우려

2년 넘게 공석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제2대 총장 선임안이 또 부결됐다. 재공모 등 2대 총장 선임 절차가 다음 이사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현 총장 대리 운영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켄텍은 “지난 6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제 2대 총장 후보 3명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임안이 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켄텍 이사회는 차기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 계획안을 재수립할 예정이다.

켄텍은 에너지 신소재, 인공지능(AI), 전력·원자력 기술 등에 특화된 국내 유일 에너지 전문 대

학교로 최근 1기 졸업생 30명을 배출하는 등 차세대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개교 3년만에 전임교원 1인당 연 구비 수주액은 국내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냈다.

개교 당시에는 에너지공대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국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한국전력 공사 재정 악화 등으로 설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기도 했다. 결국 2023년 12월 윤의준 초대 총장이 여러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이후 켄텍 이사회는 학교 안팎으로 2대 총장 선임 여론이 커지자 2024년 9월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총추위)를 구성하고, 10월 서류심사, 11월 면접심사를 진행하는 등 2대 총장 선임에 속도를 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목을 잡았다. 당시 박진호 총장 직무대행, 포스텍 총장 출신인 김무환씨, 충남대 총장 출신인 정상철씨가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같은 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총장 선임 절차가 무산됐다.

이어 2025년에도 켄텍 이사회는 1월, 3월, 9월

등 2대 총장 선임을 두고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같은해 6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총장 선임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할 소관 부처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는 등 새 정부 조직 개편 등으로 이사회에 총장 선임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총장 부재 26개월, 후보자 추천으로부터는 15개월만에 이뤄진 2대 총장 선임안이 또 다시 부결되면서 에너지업계 안팎에서는 켄텍 총장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켄텍의 한 관계자는 “켄텍은 국내 유일 에너지 전문 대학교로, 이제 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에너지되고 속도로, AI 데이터 센터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관련 연구와 인재 양성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2년 넘게 공석인 총장을 하루 빨리 선임해 현재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인 재정 안정성, 에너지 공대로서의 역할 정립, 국가 에너지 전략과의 연계 역할 수행 등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국세청, 여수석유화학 위기 극복 세정지원 전담반 가동

기업과 핫라인 구축 맞춤형 지원

광주지방국세청은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 기업을 돋기 위해 세정 지원 전담반을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여수국가산업단지 간담회에서 제시한 세계 협력 접근성 강화와 현장 중심 세정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광주지방국세청 세목별 담당 부서와 여수세무서, 여수상공회의 소재, 여수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

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기업인과 세정 당국 간 상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전담반 핫라인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즉시 접수해 관계부서로 연계하고 신속하게 처리 결과를 피드백한다. 매 분기 정기적으로 여수 산단에서 석유화학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을 하고 기업이 요청할 때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도 들을 계획이다.

여수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 지원도 추진한다. 여수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3월 법

인세 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기한도 중소기업은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중견기업 등은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한다.

법인세 환급금 발생 시 법정 기한인 4월 30일보다 단축해 4월 10일 내 지급하고 체납자 대상 압류 및 매각 유예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롯데하이마트 직원이 8일 설 명절·새학기 시즌 세일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오는 2월 말까지 전국 300여개 매장에서 시즌 타깃 ‘광 세일’을 진행한다. <롯데하이마트 제공>

기업 10곳 중 6곳 설 5일 휴무…‘경기악화’ 응답은 지난해보다 줄어

기업 58.7%, 설 상여금 지급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올 설 연휴에 5일을 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인 이상 4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 휴무 실시 기업 64.8%는 5일간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설 연휴는 주말(14~15일)에 이어 설 공휴일(16~18일)까지 이어진다. ‘4일 이하’와 ‘6일 이상’ 응답 비중은 각각 26.1%, 9.2%였다.

이 중 5일을 초과해 ‘6일 이상’ 휴무하는 기업

59.4%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를 이유로 제시했다. 기업 규모별로도 300인 이상 기업은 ‘6일 이상 휴무’라는 응답(22.7%)이 300인 미만 기업(7.6%)보다 높았다.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업 비중은 58.7%로 지난해(61.5%)에 비해 2.8%포인트(p) 감소했다. 설 상여금 지급 방식은 ‘정기상여금으로만 지급’(66.3%)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별도 상여금만 지급’(28.6%), ‘정기 및 별도 동시 지급’(5.2%) 순으로 조사됐다.

별도 상여금이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닌 사업주 재

량에 따라 주어지는 상여금을 말한다.

별도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업 85.7%는 별도 상여금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설 경기 상황을 묻는 말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다만 올해 설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39.5%로 작년 조사(60.5%) 때와 비교해 크게(21.0%) 낮아졌다. 또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 50.9%가 ‘작년보다 증가’를 택했고, ‘작년보다 감소’ 응답 비중은 36.0%였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다.

은행권도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9조6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의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제 가능하도록 이제 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설연휴 공과금 납부·카드 결제일 19일로 연기

중소기업 95조 자금 공급도

금융사의 대출 만기일, 카드 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설 연휴와 겹치면 19일로 연기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95조원 규모의 자금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설 연휴 기간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취약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인 고객에게는 13일에

미리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사는 설 연휴 중 만기인 대출과 결제일을 19일로 연기된다.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은 주식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데, 설 연휴와 겹치면 연후 직후로 연기된다. 13일 매도한 주식 대금은 17일이 아닌 20일에 수령할 수 있다.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도 공급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000억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생중계
삼성전자는 6일(현지시간) 열린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갤럭시 S25 울트라’로 촬영하고 생중계해, 전 세계를 더 가깝게 연결하며 독보적인 시청 경험을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갤럭시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으로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식 현장을 촬영하는 일본 선수단 모습.

/연합뉴스

이상형은 대화, 선택은 조건 직장인 연애, 결과 속 다르다

데이트 앱 66만7000건 분석 외모·경제력 기준 여전히 작동

남녀 직장인 모두 데이트 이상형으로 ‘대화’를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답했다. 하지만 실제 만남 조건을 들여다보면 외모와 경제력을 여전히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8일 블라인드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릿’(Bleet)이 2025년 한 해 동안 사용자 선호도 옵션 66만7000건을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이상형 1위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선택했다.

남성의 경우 ‘말을 예쁘게 하는’ 항목이 2위였고 이어 ‘티키타카(대화가 순조롭게 오가는 상태)가 잘 되는’, ‘긍정적인’, ‘표현을 잘 하는’ 항목 순으로 3~5위에 올랐다.

여성은 2위 항목으로 ‘다정한’을 꼽았으며 ‘티키타카가 잘 되는’, ‘말을 예쁘게 하는’, ‘표현을 잘 하는’ 항목이 상위 5위권에 포함됐다.

데이트 방식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엿보였다. 남녀 모두 ‘함께 여행하기’를 가장 선호하는

데이트 방식으로 택했다. 이는 단순한 외출보다 장시간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만남을 선호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필수 조건에서는 외형과 경제적 능력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남성 이용자가 가장 많이 설정한 외적 조건은 ‘불륜 있는 (체형)’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단일 항목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이다.

여성 이용자 사이에서는 경제적 조건과 외모 선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공기업·대기업·IT기업’과 같은 기업 유형 태그가 전체의 15%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2위는 금융, 의료 등 전문적이 포함된 ‘직종’(8%), 3위는 ‘키 180cm 이상’(7%)이 뒤를 이었다.

블라인드가 2021년 출시한 블릿은 커뮤니티를 통한 직장인 연애 소셜 플랫폼으로 현재 누적 이용자 50만명에 달한다. 연령대별 이용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사용자 가운데 30~34세 비중이 42%로 가장 높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오천피는 남 얘기…못갚는 은행 대출 ‘눈덩이’

14조 이익 4대 은행 요주의 대출 8조

4대 주요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이 지난해 약 14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둔 반면 부실 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건전성 지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 회복마저 극소수 수출 대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일부 산업·계층에 편중된 ‘K자형(양극화)’ 성장 속에 금리까지 오를 경우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2025년 연간 순이익은 총 13조991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3조3435억원)보다 약 5% 많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은행 이익의 대부분은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기반의 이자 이익이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저금리와 함께 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기 시작한 2021년(10조316억원)과 비교하면 순이익

이 4년 사이 39.4%(3조9603억원)나 급증했다. 더구나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월과 5월 두 차례 낮췄는데도 4대 은행의 이익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문제는 정상적 대출 자산 규모만 커진 게 아니라, 상환 여부가 불확실한 부실 대출도 빠르게 불어났다는 점이다.

4대 금융지주가 실적과 함께 공개한 팩트북(손익·자산·재무 상세표)을 보면, 4대 계열 은행의 지난해 4분기 말(12월 말) 기준 요주의여신(연체 1~3개월)은 7조9291억원에 이른다.

전년(7조1146억원)보다 11%, 2021년(5조3093억원)보다 49%나 많다. 요주의여신 규모는 ▲2021년 말 5조3093억원 ▲2022년 말 6조623억원 ▲2023년 말 6조2918억원 ▲2024년 말 7조1146억원 ▲2025년 말 7조9291억원으로 계속 커지는 추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소상공인·취약계층 ‘고효율 기기·가전 보조금’ 오늘부터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기기·전자제품 구매 보조금 신청을 9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한국전력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와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사업장에 새로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구매비의 40%를 한도(냉난방기·냉장고 160만원, 세탁기·건조기 8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매장에서 개방형 냉장고(쇼케이스)에 문을 닫거나 문이 닫힐 냉장고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설치 면적 1m당 25만9000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냉장고·김치냉장고·세탁기·에어컨·전기밥솥·전기정수기(유선)·공기청정기·TV·제습기·의류건조기·식기세척기 등